

은행권, 가정의달 맞아 자녀·부모 금융상품 ‘붐물’

광주은행, ‘가족애 愛드림 이벤트’
우리은행, 최고 연8.0% 적금 출시
새마을금고, 12세 미만 대상 혜택
신한은행, 시니어용 ‘연금 패키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주요 은행들이 자녀와 부모님을 위한 금융상품을 선보이고 관련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마케팅 경쟁에 나섰다. 특화 상품을 이용하면 고금리 혜택과 체계적이고 안전한 자산 관리를 통해 미래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개인회원(개인신용카드, 개인 체크카드)을 대상으로 ‘가족애 愛드림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각 업종 이용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최대 3만원의 모바일쿠폰을 제공하며, 전체 업종에서 1원 이상 이용 시 총 300명에게 CU 모바일쿠폰(5000원)을 증정하는 ‘응모애 愛’, 주유 업종에서 15만원 이상 이용 시 총 50명에게 GS칼텍스 모바일쿠폰(3만원권)을 제공하는 ‘주유애 愛’, 백

화점·대형마트 업종에서 20만원 이상 구매 시 총 100명에게 신세계 모바일쿠폰(3만원권)을 제공하는 ‘선물애 愛’ 등 5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다.

응모를 통해 추첨이 진행되며 당첨자는 개별 LMS로 안내된다. 경품 추첨일은 6월 10일로, 중복 추첨도 가능하다.

아동·양육 수당 실적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아이키움적금Ⅱ’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실명의 개인(1인 1계좌)을 대상으로 하며 1년, 2년, 3년, 5년의 계약기간 동안 월 1만원 이상 월 최대 20만원 이하(원 단위)를 정액 적립하는 정기적금 상품이다. 계약 기간별 기본금리 연 2.5~2.7%에 아동·양육 수당 실적 및 계약기간에 따라 연 0.7~2.2%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예금에 가입한 다음달 1일부터 만기일 전전월말까지 당행 본인 명의의 아이키움통장 평균잔액 20만원 이상일 경우 연 0.30%p, 신규가입시점(대상 상품가입 전) 당행에 등록된 자택 주소가 광주·전남 지역인 개인 고객에게 만기 해지 시 연 1.0%p 추가 우대금

리를 제공한다.

이벤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https://pib.kjbank.co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자녀 세대에게 고금리 혜택을 선별할 수 있는 ‘우리 내리사랑 적금’을 출시했다.

만 50세 이상 시니어 고객이 우리 WON뱅크에서 가입코드를 발급 받아 만 29세 이하 자녀나 손주에게 전달하면 가입자는 최고 연 8.0% 금리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코드는 우리은행을 통해 급여나 연금을 받는 고객에게만 제공되며, 선착순 10만좌 한정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해당 적금은 월 최대 30만원, 1년 만기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6.0%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조건은 △우리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시 연 4.0%p △우리은행 예·적금 상품 미보유시 연 1.0%p △비대면 가입시 연 1.0%p 등 세 가지다.

가입코드를 발급받은 부모·조부모 고객을 위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안마

의자 등 여러 상품을 제공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가정의달을 맞아 ‘MG꿈나무적금’을 준비했다.

MG꿈나무적금은 2013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2025년생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1년 만기 상품으로 1만좌와 한정 출시됐으며, 금고별 정기적금 1년 기본이율(2.0~3.0%)에 최대 6%p의 우대금리를 더해 적용된다.

이외에도 저금통 만들기, 그림일기 그리기, 금융상식 퀴즈 등 새마을금고 공식 SNS를 통한 다양한 이벤트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SNS 연계 이벤트’ 등도 진행한다.

BNK부산은행도 ‘아이사랑 적금’을 신규 출시하고 기존의 ‘너만솔로 적금’과 ‘아기천사 적금’을 리뉴얼했다.

해당 적금상품 3종은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가입 기간은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다. 연 1.9% 기본금리에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금리 5.1%p를 더해 연 최고 7.0%까지 적용된다. 공통 우대금리 조건으로는 입출금 예금(또

는 수익증권) 평균잔액에 따라 최대 연 2.0%p, 주택담보대출(또는 전세자금대출) 보유 1.0%p, 금융정보 혜택알림 동의 0.1%p가 있다. 또한 ‘아이사랑 적금’은 만 1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너만솔로 적금’은 가입기간 중 결혼한 경우, ‘아기천사 적금’은 가입기간 중 출산한 경우 상품별 우대금리 2.0%p를 제공한다.

자산관리가 필요한 부모 세대를 위한 금융상품도 주목해 볼만 하다.

신한은행은 공적·사적연금을 받는 시니어 맞춤형 생활 혜택을 제공하는 ‘신한 이로운 연금 패키지’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내용은 △금리가 이로운 ‘신한 이로운 연금 통장’ △혜택이 이로운 ‘신한 연금머니’ △건강이 이로운 ‘50+걸어요’ △보장이 이로운 ‘신한 미니보험’ △교통이 이로운 ‘60+교통지원금’ 등 총 5가지로 구성돼 있다. 매월 고금리 이자를 지급하는 파킹통장 ‘신한 이로운 연금 통장’의 경우 기본 이자율 연 0.1%에 우대조건 충족시 100만원 한도로 최대 연 3%를 제공한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신세계, 아이웨어 브랜드 ‘리끌로우’ 선포

광주신세계가 트렌디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대로 인기를 끌고 있는 ‘리끌로우(RECLOW)’를 선보인다. 리끌로우 제품은 자외선을

99% 차단하는 UVA렌즈를 사용하고 전통적인 가공 방식에 트렌디함을 담은 제품으로 유명하다. 리끌로우는 기본 선글라스부터 색이 들어간 틸트 선글라스, 손바닥 크기로 접을 수 있는 접이식 선글라스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최근 데이식스의 ‘영케이’가 함께한 리끌로우 SS컬렉션의 뽀레 안경도 인기가 좋다. 리끌로우의 대표상품은 선글라스 2만9900원, 폴더 선글라스·안경 3만4900원 등 합리적인 가격대로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12일 금융경제강좌 개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올해 금융경제강좌 2회차 강의를 오는 12일 오후 2시 광주전남본부 1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차에서는 홍준욱 박사(프리즘투자자문 대표)가 ‘불확실성 시대의 현명한 자산관리’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최근 대내외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개인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각 연령층에 적합한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노하우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

홍준욱 박사는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국민연금공단 투자운용팀장 등을 역임했으며 ‘홍준욱의 최소한의 경제토크’, ‘대한민국 돈의 역사’ 등 경제 및 금융투자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이번 강의를 포함해 올해 총 6회의 강좌를 개최할 계획이며,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무료로 참가 가능하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다과가 제공되며, 상·하반기 통합 4회 이상 수강자에게는 별도의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광주경총, 내일 ‘트럼프와 혼돈의 시대’ 강연

광주경총자총협회는 9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서상영 애널리스트를 초청해 ‘트럼프와 혼돈의 시대’를 주제로 제1684회 금요조찬 포럼 특강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WM혁신본부 상무를 맡고 있는 서 애널리스트는 한국경제 등 시황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한국은행 총재 대외포상,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유공, 매일경제TV 등 다수 언론사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다. 이번 포럼에서는 트럼프 2기 무역분쟁과 한국의 영향, 대 중국 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을 비롯해 경제 및 환율, AI 산업과 주식시장, 채권과 상품시장 등에 대해 강연한다.

금요조찬 포럼 참석 및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원사업부(062-654-3426)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광주상의, 지역 경제계 대선 공약 16건 발굴

공항 이전·달빛철도 예타 면제 각 정당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

광주상공회의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경제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핵심 정책공약 16건을 발굴, 주요 정당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하기로 했다.

7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이번 공약 과제는 지역 산업 현장과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중심으로 마련됐다. 특히, 지역 경제 현안을 넘어 광주와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핵심 과제를 폭

넓게 담아냈다.

우선, 광주상의는 광주 민·군공항의 조속한 이전과 서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및 국가 주도의 이전 추진을 요청했다.

서남권 초광역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축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광주·전남·전북 간 전력망과 수소, 재생에너지, 에너지 특화산업 등을 연계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적 사업으로, 초광역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광주·대구 달빛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한 후속 절차 지원을 지적하며, 임기 내 조기 착공을 위한 확실한 재정·정책적 이행을 요구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의 안정적 재정지원, 광주 AI 생태계 2단계 사업인 ‘AX 실증도시’ 예타 면제 추진 등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KENTECH은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법적 재정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의 광주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AI와 소재산업 중심지인 광주가 기초과학 대형 연구시설의 최적 입지임을 주장했다. 문화분야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국회광주도서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관 등 3대 국립문화시설의 지역 균형 배치를 요청했다.

기후위기와 농촌 공동화 문제 대응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 및 농지법 개정도 주요 과제로 제안됐다.

노동시장 제도 개선 분야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중심 전환 및 법 개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일명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광주상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입법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한도 상향,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 OECD 평균 수준으로의 법인세 인하 등을 건의했다.

한상원 회장은 “이번 공약 과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실현 가능한 정책 과제”라며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지역경제계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